

미 10년물 5.01%, 코스피 6,600선 후퇴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국내 기준	2026-09-15 종가
아시아 기준	2026-09-15 종가
미국 기준	2026-09-15 종가. 한국시간 9월 16일 새벽 마감
원자재 기준	2026-09-15 일간 값
작성 시각	2026-09-16 수요일 07:40 KST. 국내 개장 전

금리와 유가가 같이 오르자 저가매수는 하루를 못 버텼다.

어제는 AI 속도조절론이 반도체를 때려 코스피가 3.26% 급락한 날이었다. 오늘은 그 낙폭을 사러 들어온 자금이 미 국채 금리에 흠어진 날이다. 미 10년물이 2007년 이후 처음 5% 위에서 마감하는 동안 브렌트유는 107달러대, 원/달러는 1,359원대까지 올랐다. 반도체는 오늘 보험권에서 버텼고 대신 보험과 금융과 유통이 2%에서 3%씩 밀렸다. 이들 연속 하락이지만 주인공이 바뀌었다.

경제 온도계

금리

긴축

미 10년물 5.01%로 2007년 7월 이후 최고. 국고채 3년물 4.091%, 10년물 4.600%로 연고점. 연준 인상 확률 92%.

어제: 긴축 (9월 11일자 기준)

성장

둔화

미 9월 엠파이어스테이트 7.6으로 예상 14.75를 크게 밑돌았다. 중국 8월 소매판매도 예상 하회. 산업생산과 한국 수출은 여전히 강하다.

어제: 확장 (9월 11일자 기준)

물가

상승 압력

브렌트유 107.46달러, WTI 103달러대. 브렌트 9월 상승률 18%.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이 계속 멈춰 있다.

어제: 상승 압력 (9월 11일자 기준)

위험 선호

회피

코스피 나흘 연속 하락. 외국인과 기관이 2조 4,762억 원 순매도. VIX 17.49. 뉴욕도 이틀 연속 내렸다.

어제: 회피 (9월 11일자 기준)

지표

국내

지수	종가	전일 대비	등락률
코스피	6,627.26	-57.11	-0.85%
코스닥	812.41	+5.62	+0.70%

코스피는 6,659.25로 하락 출발했다. 장중 6,715.46까지 올랐다가 6,582.20까지 밀린 뒤 6,600선을 회복해 끝냈다. 거래량 2억 7,404만 주, 거래대금 16조 2,453억 원. 나흘 연속 하락이고 코스닥은 사흘 만에 반등했다. 하락 업종은 운송장비와 부품 3.35%, 보험 3.08%, 유통 2.75%, 금융 2.18%, 운송과 창고 2.15%, 증권 2.14%, 전기와 가스 1.63%, 통신 1.48%. 의료정밀, 건설, IT서비스, 섬유 의복은 올랐다. 삼성전자 0.20% 내린 248,500원, SK하이닉스 0.41% 내린 1,690,000원, LG에너지솔루션 3.98% 오른 365,500원. 출처는 파이낸셜뉴스 fn마감시황,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투자자별 순매수 (마감 기준)

주체	코스피	코스닥	비고
외국인	-1조 5,711억 원	+238억 원	코스피에서만 매도
기관	-9,051억 원	+1,107억 원	양 시장 방향이 같았다
개인	+8,331억 원	-1,398억 원	코스피 유일한 매수 주체

파이낸셜뉴스 집계. 같은 날 기타법인이 코스피에서 1조 6,430억 원을 순매수해 외국인 매도를 받아냈다(아시아경제, 글로벌이코노믹).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4곳이 이날 자사주 388만 8천 주 매수를 신청했다. EBN은 외국인 1조 7,055억 원, 기관 1조 1,432억 원 순매도로 집계해 매체 간 차이가 1,300억 원에서 2,400억 원 있다. 방향은 모든 매체가 같다.

미국 (9월 15일 종가)

지수	종가	등락률
S&P 500	7,585.73	-0.45%
나스닥 종합	25,981.57	-0.78%
VIX	17.49	+2.28%

이 장은 국내장이 끝난 뒤 열려 한국시간 16일 새벽에 마감했다. 다우존스는 328.09포인트 내린 52,093.11로 0.63% 하락.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 내렸다. 연준 이틀 일정의

첫날이었고 결정은 한국시간 17일 새벽에 나온다. 전날 5.9% 급락한 반도체 업종에서 일부가 되돌려져 퀄컴이 4% 넘게, AMD와 코히런트가 2% 안팎 올랐다.

아시아 (당일)

지수	종가	등락률
닛케이 225	63,484.10	-0.01%
상해종합	3,864.28	-0.54%
항셱	24,667.24	-1.00%
대만 가권	45,511.49	-0.77%

한국은 아시아와 같은 방향이었고 낙폭은 중간이었다. 닛케이는 장중 64,101.00까지 608.01포인트 올랐다가 일본 장기금리 상승에 밀려 8.89포인트 하락으로 끝났다. 사흘 연속 하락이다. 대만은 351.03포인트 내렸고 거래대금은 6,034억 대만달러였다. 유럽도 약했다. 스톡스 600이 0.2% 내렸고 은행업종이 1.3% 빠졌다.

매크로

항목	종가	전일 대비
원/달러	1,359.4	+12.1
달러인덱스	99.60	-
국고채 3년물	4.091%	+0.066%p
미 국채 10년물	5.010%	+0.023%p
미 국채 2년물	4.656%	-
WTI	103.50	+2.1%
금	4,295.94	-0.07%

원/달러는 국내 주간 거래 종가이고 6월 29일(+13.2원)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국고채는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3년물은 2023년 10월 26일 이후, 10년물 4.600%(+6.4bp)는 2022년 10월 21일 이후 최고다. 5년물 4.345%(+6.6bp), 통안 2년물 3.995%(+7.2bp). 미 10년물은 트레이딩이코노믹스 9월 15일 종가이고 전일 종가 4.987%는 CNBC 기준이다. 장중 5.041%로 2007년 7월 이후 최고였고 같은 날 다른 집계는 5.02%로 적어 1bp 어긋난다. 30년물은 5.364%로 3bp 이상 올랐다(장중 5.401%). 2년물은 CNBC 장중 4.656%(장중 고 4.688%)만 확인해 전일 대비를 비웠다. 달러인덱스 99.60은 유럽 거래 시간대의 2주 최고 수준이며 뉴욕 종가를 확인하지 못해 전일 대비를 비웠다. WTI는 트레이딩이코노믹스 일간 값

103.50달러 부근(5월 19일 이후 최고)이고 전일은 101.39달러다. 브렌트유는 107.46달러.
금은 현물 기준.

흐름 읽기

미 10년물이 2007년 7월 이후 처음 5% 위에서 마감했고, 연준은 이를 일정의 첫날을 보냈다. 장중 5.041%까지 올랐고 종가는 5.01%다. 30년물도 5.364%로 2007년 6월 이후 최고를 찍었다. 시장은 한국시간 17일 새벽 결정에 25bp 인상 확률 92%를 반영하고 있다(CME 페드워치). 인상이 나오면 2023년 이후 첫 인상이고, 5월 취임한 워시 의장 체제의 첫 인상이다. 이날 나온 9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7.6으로 예상 14.75를 크게 밑돌았다. 전월은 20.6이었다. 지표가 약했는데도 금리가 올랐다는 점이 오늘 뉴욕의 성격이다.

브렌트유가 107달러대로 올라 9월 상승률이 18%가 되자 아시아와 유럽이 함께 밀렸다.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 이후 계속 멈춰 있고 수리에 몇 주가 걸린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WTI도 103달러대로 5월 19일 이후 최고다. 항생이 1.00% 내려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빠졌고 대만이 0.77%, 상해가 0.54% 내렸다. 닛케이는 장중 608포인트 올랐다가 일본 장기금리 상승에 밀려 보합으로 끝났다. 유럽 스톡스 600은 0.2% 내리고 은행업종만 1.3% 빠졌다. 한국은 방향이 같았고 낙폭은 중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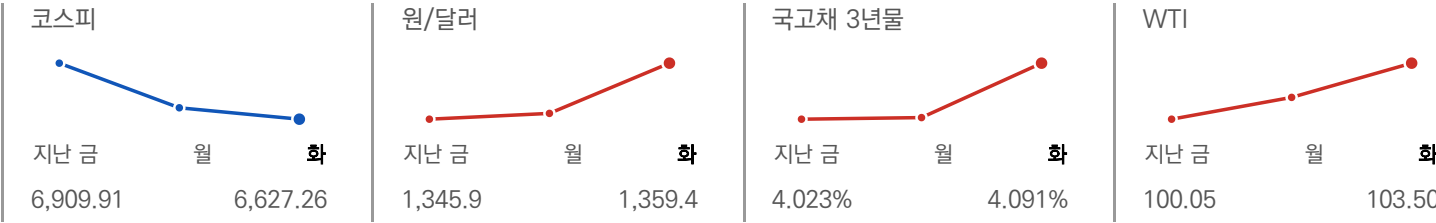
코스피는 0.85% 내려 나흘 연속 하락했지만 6,600선은 지켰다. 하락 출발해 장중 6,715.46까지 올랐다가 6,582.20까지 밀렸다. 전날 3%대 급락에 들어온 저가매수가 미 금리 상승 소식에 흩어졌다는 것이 국내 매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대신증권은 새로운 악재가 없었는데도 금리와 유가가 더 오르자 저가매수가 약해졌다고 적었다. 코스닥은 0.70% 올라 사흘 만에 반등했다. 이 장이 끝난 뒤 뉴욕이 또 내렸다. 서울은 뉴욕의 월요일을 보고 팔았고, 뉴욕은 화요일에 한 번 더 내렸다.

반도체가 버티고 보험과 금융이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는 0.20% 내린 248,500원으로 끝났다. SK하이닉스도 0.41% 내린 1,690,000원으로 보합권이었다. 어제 두 종목이 4%에서 6%씩 빠진 뒤라 오늘은 하방이 굳어진 모습이다. 대신 운송장비와 부품이 3.35%, 보험이 3.08% 내렸다. 유통 2.75%, 금융 2.18%, 증권 2.14%가 뒤를 이었다. 금리에 민감한 업종과 내수 업종이 나란히 빠진 셈이다.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만 3.98% 올라 365,500원으로 마감했다. 뉴욕에서도 전날 5.9% 급락한 반도체가 일부 되돌려져 퀄컴이 4% 넘게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이 2조 4,762억 원을 팔았고 그 자리를 기타법인이 메웠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5,711억 원, 기관이 9,051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8,331억 원을 순매수해 유일한 매수 주체였다. 같은 날 기타법인이 1조 6,430억 원을 사들였고 상장사 44곳이 자사주 매수를 신청했다. 이번 주는 이틀 만에 코스피가 4.09% 내린 주다. 월요일은 AI 속도조절론이었고

화요일은 미 금리와 유가였다. 남은 일정은 수요일 밤 연준, 목요일 영란은행, 금요일 일본은행이다.

이번 주



9/14 (월)	아모데이의 AI 속도조절 제안에 반도체 급락. 미 10년물 장중 5% 터치	-3.26%
9/15 (화)	미 10년물 5% 돌파와 유가 103달러. 저가매수 흩어지고 6,600선 사수. FOMC 개막	-0.85%

이번 주 거래일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이다. 등락률은 코스피 종가 기준이고 주간으로는 6,909.91에서 6,627.26으로 4.09% 하락했다. 궤적의 첫 점은 이번 주 이야기의 출발점인 지난주 금요일(9월 11일) 종가다. 월요일 값은 코스피 6,684.37과 WTI 101.39만 직접 확인했고, 원/달러 1,347.3원과 국고채 3년물 4.025%는 화요일 보도의 전일 대비에서 역산했다. 원/달러 월요일 증가를 1,347.1원으로 적은 매체가 있어 0.2원 차이가 있다.

눈여겨볼 뉴스

01 미 10년물 5% 돌파, 2007년 7월 이후 최고

금리 축. 장중 5.041%까지 올랐고 시장은 연준 25bp 인상 확률을 92%로 반영했다. 인상이 나오면 2023년 이후 첫 인상이다. 30년물도 2007년 6월 이후 최고다.

CNBC 및 CNN Business, 2026년 9월 15일

02 아모데이의 AI 속도조절 제안, 반도체 업종 5.9% 급락

성장 축. 엔트로픽 CEO의 AI 안전 관련 제안에 다른 경영자들이 동조하자 AI 설비투자 둔화로 읽혔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밀리고 마벨은 7.59% 빠졌다. 반대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랐다.

CNN Business 및 Fortune, 2026년 9월 14일

03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 중단 지속, 브렌트유 107달러대

물가 축. 호르무즈를 우회하던 홍해 수송로가 막혀 브렌트 9월 상승률이 18%가 됐다. 수리에 몇 주가 걸린다는 보도다. 금리 인상 기대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변수다.

OilPrice.com 및 Trading Economics, 2026년 9월 15일

04 중국 8월 산업생산 5.2%로 예상 상회, 소매판매 0.4%로 하회

성장 축. 산업생산은 예상 4.8%와 전월 4.5%를 넘었지만 소매판매는 예상 0.8%에 못 미쳤다.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개발 투자는 19.9% 줄었다. 생산과 내수의 격차가 그대로다.

경향신문 및 SBS Biz, 2026년 9월 15일

05 국고채 3년물 4.091%, 10년물 4.600%로 연고점

금리 축. 3년물은 2023년 10월 이후, 10년물은 2022년 10월 이후 최고다. 미 금리 급등이 국내 커브 전 구간으로 전이됐고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인상 전망이 함께 보도됐다.

이투데이 채권마감 및 머니투데이, 2026년 9월 15일

다가오는 일정

9/16 (수) 21:30	미 8월 소매판매	-
9/17 (목) 03:00	연준 금리 결정과 경제전망, 워시 의장 회견	인상 확률 92%
9/17 (목) 20:00	영란은행 금리 결정	-
9/18 (금) 15:30	일본은행 금리 결정과 총재 회견	인상 확률 61%

시각은 모두 KST. 연준은 미 동부 오후 2시 발표를 환산했고 영란은행은 런던 정오 기준이다. 일본은행은 회의가 17일부터 이틀이고 성명이 18일 낮에 나오며 총재 회견은 15시 30분이다. 인상 확률은 연준이 CME 페드워치, 일본은행이 시장 집계이며 둘 다 9월 15일 조회 값이다. 미 소매판매의 시장 예상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fn마감시황. 코스피 코스닥 증가, 투자자별 순매수, 업종 등락 방향. 2026-09-15 16:09
-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글로벌이코노믹, 인포스타데일리. 코스피 시가 고가 저가, 거래대금, 기타법인 순매수, 업종별 하락률, 대신증권 코멘트. 2026-09-15
- 위키트리, EBN.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증가와 대조 수급 집계. 2026-09-15
- 뉴시스, 이투데이, 머니투데이. 원/달러 증가와 최대 상승폭 비교. 2026-09-15
- 이투데이 채권마감, 머니투데이. 국고채 3년 5년 10년물과 통안 2년물 금리, 연고점 기록. 2026-09-15
- CNBC.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30년물,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증가, 연준 인상 확률. 2026-09-15
- Trading Economics. 미 10년물 증가, WTI와 브렌트유 일간 값, 금 현물, 달러인덱스. 2026-09-15
- Yahoo Finance, TheStreet, Bloomberg 검색 결과. 9월 14일과 15일 미국 지수 증가와 VIX. 2026-09-14 및 15
- nippon.com, 니가타일보, 일본경제신문, minkabu. 닛케이 225 증가와 장중 고가. 2026-09-15
- 財報狗, Yahoo 대만. 대만 가권 증가와 거래대금. 2026-09-15
- 경향신문, SBS Biz, 파이낸셜뉴스. 중국 8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부동산 투자와 예상치. 2026-09-15
- 뉴욕 연방준비은행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조사, Trading Economics. 9월 지수 7.6과 예상 14.75. 2026-09-15
-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한국 8월 수출입물가지수. 2026-09-15
- CNN Business, Fortune. AI 속도조절론과 반도체 급락. 2026-09-14
- OilPrice.com, FinancialJuice.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과 유럽 증시. 2026-09-15
- FXStreet, Chase, Bloomberg 검색 결과. 달러인덱스 수준, 워시 의장 발언, 연준 현재 금리 3.50~3.75%. 2026-08-28 및 09-15
- Finance Calendar, centralbank.watch. 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 일정과 일본은행 인상 확률. 2026-09-15 조회
- 이 문서의 9월 11일자. 온도계의 어제 상태, 지난주 금요일 증가와 금리 유가 값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이번 실행 환경의 이그레스 정책이 페이지 가져오기를 전부 막았다. 모든 수치를 검색 결과의 요약과 제목으로 두 곳 이상 교차 확인했고 원문 페이지는 열지 못했다. 자릿수가 중요한 항목은 합계가 맞는지 산술로 검산했다.
- 달러인덱스 9월 15일 뉴욕 증가. 유럽 거래 시간대의 99.60(2주 최고)만 확인해 전일 대비를 비웠다.
- 미 국채 2년물 증가와 전일 대비. CNBC 장중 4.656%와 장중 고 4.688%만 확인했다. 9월 14일 장중 값이 4.658%로 적혀 있어 같은 기준의 전일 대비를 만들 수 없었다.
- 미 10년물 증가가 출처마다 5.01%와 5.02%로 1bp 어긋난다. 표에는 전일 증가와 같은 계열인 5.010%를 썼다.
- WTI 9월 15일 정산가. 트레이딩이코노믹스의 일간 값 103.50달러 부근만 확인해 등락률을 소수 첫째 자리로 뒀다.
- 코스피 투자자별 순매수가 매체 간 어긋난다. EBN은 외국인 1조 7,055억 원, 기관 1조 1,432억 원 순매도로 집계했다. 한국거래소 확정치 확인이 필요하다.
- 코스피 상승 업종의 등락률. 의료정밀 건설 IT서비스 섬유 의복이 올랐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 VIX 9월 14일 증가가 17.10과 17.18로 갈린다. 오늘 값 17.49의 등락률은 17.10 기준이다.
- 어제 문서(9월 14일자)가 없어 온도계의 어제 줄은 9월 11일자를 옮겨 적었다. 그래서 성장 축의 확장에서 둔화로의 변화는 이틀 사이의 변화다.
- 미 8월 소매판매의 시장 예상치.
- 9월 14일 원/달러 증가와 국고채 3년물. 화요일 보도의 전일 대비에서 역산했고 꺾적의 가운데 점에만 썼다.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개인용 기록입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의견이 아니며, 수치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 전에 원출처를 확인하세요.